

# 근대 일본의 “전쟁(戰爭)”개념과 그 전개

: 전쟁관의 변화와 대응 정책론의 전개를 중심으로

박영준(국방대학교)

## 논문 요약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이쿠사”, 혹은 “타타카이” 등의 개념이 전쟁을 지칭하여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들은 대체로 일본 내부의 봉건 제후간의 싸움을 가리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개념들을 대체하여 “센소우(戰爭)”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서구 열강들에 관한 정보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18세기 후반 이후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18세기 말 이후 일본인들이 그들을 둘러싼 국제질서의 위기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전쟁”개념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했다.

18세기 후반에는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등이 일본을 “해국(海國)”으로 규정하며, 바다를 통해 일본에 도달할 수 있는 러시아, 청국 등을 위협시하며, 그에 대한 해군력 증강의 과제를 제기하였다. 1860년대 메이지 초기에도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나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등을 메이지정부의 실력자들 사이에는 역시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을 바탕으로, 그에 대응하기 위한 부국강병정책이나 조선 등에 대한 선제 침략 등이 대외정책의 옵션으로 제안되었다. 메이지 정부의 개혁정책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1880년대 이후에도 서구 열강들을 위협시하며, 완전한 서구화를 추진하거나, 대륙 침략을 단행하여 서구 국가들과 같은 강국의 반열에 올라가는 전략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변화하는 현실을 지칭하기 위해 어떠한 용어와 개념을 선택하는가는 그와 연관된 정책의 변화에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18세기 말 이후의 근대 일본은 이러한 사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제어: 일본, 전쟁, 개념사, 메이지유신(明治維新), 하야시 시헤이(林子平),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 I. 문제의 제기

전쟁(war)은 국제정치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전개되는 무력충돌이 어떤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그러한 무력충돌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에 의해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고대 그리이스의 투키디데스 혹은 고대 동아시아의 춘추전국(春秋戰國) 시대 이래 국제정치학의 근원적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쟁 현상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문제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단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춘추(春秋)시대 말기에 활동한 손자(孫子)는 전쟁현상이 국가의 생사(生死), 국가의 존망(存亡)을 좌우하는 국가 차원의 큰일(大事)로 파악하였다.<sup>1)</sup> 따라서 손자는 전쟁에 임하여서도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전략”(不戰而屈人之兵)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보았다. 10여개의 제후 국가로 나뉘어져 있던 당대 상황에서 전쟁에서의 패배는 국가의 마치 존망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자의 전쟁관이 배태된 것이라 여겨진다.

손자의 병서(兵書)는 중국은 물론 조선에서도 오랫동안 읽혀진 고전적 텍스트가 되었다. 예컨대 임진왜란이 끝난 지 얼마 안된 시점인 1600년 12월 7일, 훈련도감에서 선조(宣祖)에게 올린 보고에 의하면, “손자(孫子) 및 오자(吳子)는 마치 사서(四書)의 논어, 맹자와 같으니, 병법을 배우는 자는 먼저 손자 및 오자의 대의를 통한 뒤에 요람(武經要覽) 등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sup>2)</sup> 일본에서도 도쿠가와 막부의 유학을 관장하던 지위에 있던 하야시라잔(林羅山)부터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에 이르기까지 손자(孫子)에 관한 다양한 주석서가 발간된 바 있다.<sup>3)</sup>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후술하듯이 손자의

1)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始計編). 인용은 孫子, 『孫子兵法』 김광수 역주 (책세상, 1999) 참조.

2) 『朝鮮王朝實錄』 宣祖 33년(1600) 12월 7일자 기사 참조.

3) 이에 관해서는 佐藤堅司, 『孫子の思想史的研究』 (1962) 참고.

전쟁관 및 병법이 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서구세계에서도 전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문제는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보였다. 예컨대 나폴레옹 전쟁을 겪은 이후 프리시아의 클라우제비츠는 프랑스 대혁명 이래 전쟁은 이전과 다른 국민전쟁의 양상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보면서 전쟁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 즉 폭력 행동과 대결, 마찰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상이라고 파악하였다.<sup>4)</sup>

그런데 비스마르크에 의한 대 오스트리아전쟁(1866) 및 프랑스전쟁(1870)이 승리로 귀결되고, 독일통일이 이룩되면서 전쟁관념에 변화가 발생했다. 예컨대 당대 대표적인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하인리히 폰 트라이츠크(Heinrich von Treitschke)는 역사의 장엄함은 끊임없는 국가들의 투쟁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약하고 비겁한 국가들은 정당하게 멸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쟁은 병약한 국가들에게 하나의 처방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전쟁을 예찬하는 입장을 보였다.<sup>5)</sup>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총력전(total war)의 개념이 새롭게 대두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쟁에 대한 관념은 같은 국가라고 하여도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중점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이다.

일본은 근대화가 궤도에 이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에 걸쳐 유독 많은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로 지적된다.<sup>6)</sup>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에는 19세기 이후부터 과연 어떠한 전쟁개념, 어떠한 전쟁관이 식자들이나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것일까. 개념사 연구자들은 특정 사회에서 사용하

4) 클라우제비츠는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이 각각 국민, 군대와 군사지휘관, 정부에게 적용된다고 보았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류제승 역 (책세상, 1999), 제1부. Peter Paret, "Clausewitz",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Oxford: Clarendon Press, 1986, p. 201.

5) Azar Gat,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hought: The Nineteenth Century*. Oxford: Clarendon Press, 1992, Chap. 2. "The German Military School: Its World-View and Conception of War, 1815-1914"를 참조. 트라이츠크의 전쟁관은 그 이전 피히테나 헤겔의 전쟁관을 이어받고 있다.

6)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10년마다 큰 전쟁을 일으켰다는 지적은 가토 요코(加藤陽子),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박영준 역, 태학사, 2003을 참조.

는 개념과 그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사회의 정치세력이 갖고 있는 현실 인식과 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7)</sup> 본고는 도쿠가와 막부의 말기에 해당하는 19세기 초기부터 러일전쟁이 발발하는 20세 초기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일본의 식자들에 의해 쓰여진 논설을 중심으로 근대 일본의 전쟁개념, 즉 전쟁관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의 추이를 검토하고자 한다.<sup>8)</sup> 이를 통해 근대 일본의 정치적, 대외관계적 변화가 보다 선명히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 II. 막말기(幕末期)의 전쟁 개념과 대응정책론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쟁(戰爭)”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번역되어 일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본에서는 제후와 제후, 혹은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쿠사(戰)”, 혹은 “타타카이(戦い)” 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전쟁(戰爭)”이라는 용어는 아마 19세기 초중반 경에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하여, 서서히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sup>9)</sup>

7) Terence Ball, *Transforming Political Discourse: Political Theory and Critical Conceptual History*. Oxford: Basil Blackwell, 1988, pp. 1~21.

8) 본 연구는 “전쟁” 개념 자체가 어떻게 번역되고 수용, 진화되었는가 보다는 “전쟁관”의 유형이 어떻게 사회 내에 형성되고, 변화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9) 1860년에 저술된 요코이 쇼난(横井小楠), 『國是三論』에서 “전쟁”의 용례가 보여진다. 横井小楠, 『國是三論』(万延 元年), 佐藤昌介, 植手通有, 山口宗之, 『日本思想大系 55: 渡邊華山, 高野長英, 佐久間象山, 横井小楠, 橋本左内』 岩波書店, 1971, pp. 449, 452, 453 등 참조. 왕정복고 직후인 1868년에 메이지정부와 막부 지지파 간에 벌어진 무력충돌도 “보신전쟁(戊辰戰爭)”으로 불리어졌다. 따라서 1860년대 이전부터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메이지유신 이후에도 상당기간은 “전쟁” 용어 보다는 이쿠사, 혹은 타타카이(戰)의 용어가 정책결정자들 사이에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岩倉具視, “會計外交等條條意見”(1869년 2월) 『岩倉具視關係文書 1』, pp. 317~330 참조. 한편 “평화” 개념이 일본에서 번역되어 사용된 경위에 대해서는 石田雄, 『日本の政治と言葉: 自由と福祉』 東京大学出版会, 1989, pp. 16~19 등을 참조.

전통적 용어들과 병행하여, “전쟁”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도쿠가와 막부 말기, 소위 막말기(幕末期)의 시대상황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30년대 이래 자국 상선의 해외도항을 금지했던 도쿠가와 막부는 예외적으로 나가사키를 개항하여 네덜란드 상선을 정기적으로 받아들였었다.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나가사키에 내항한 네덜란드 상선들은 서구에서 개발된 물품들 뿐만 아니라, 최신 서구의 정세에 관해서도 유용한 정보들을 일본에 전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당대 유럽 사회에서 저술된 의학, 지리, 군사, 정치 등의 관련 서적도 유입되어 네덜란드어로 읽혀지거나 번역되기도 하였다.<sup>10)</sup> 나가사키에 주재하던 네덜란드 역관들을 매개로 한 이러한 정보와 물품들이 18세기 중반 이후 일본 사회에 확산되어, 소위 란기쿠(蘭學, 네덜란드 학문)가 발달하게 되었다. 따라서 1853년 페리 함대의 내항에 따라 정식으로 일본이 개국되기 이전의 시대에도, 에도(江戸)시대의 개명된 식자(識者)들이라면, 이미 당대 유럽 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던 국제정세의 흐름, 나폴레옹의 전쟁이나 유럽 각국간의 세력 각축의 양상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막말기(幕末期) 일본의 식자들은 장차 일본이 직면하게 될 전쟁과 평화의 문제들에 관해 특색있는 담론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 1. 막말기의 정세인식과 전쟁관

네덜란드 상선이 전해준 서구 정세에 관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재인식하고 향후 직면하게 될 대외문제, 특히 전쟁과 평화의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구상을 꾀력한 대표적 인물로는 하야시 시헤이(林子平)를

10) 예컨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독일어판이 일본어로 번역되는 것은 1890년 이후의 일이지만, 막말기의 대표적 양학자(洋學者) 가운데 일인이었던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은 이미 1859년에 네덜란드어로 번역된 『전쟁론』을 입수하여 읽고 있었다고 한다. 佐藤堅司, 『孫子の思想史的研究』 原書房, 1980, p. 389. 클라우제비츠 『전쟁론』의 독일어판 전편이 『大戰學理』의 제명으로 번역되는 것은 1903년의 일이다. 淺野祐吾, 「近代日本におけるクラウゼヴィッツの影響」 クラウゼヴィッツ協會編 『戦争なき自由とは』 日本工業新聞社, 1982, p. 523.

들 수 있다. 센다이 출신이었지만, 나가사키에 수시로 내려가 난학(蘭學)을 접한 그는 1791년에 간행된 『해국병담(海國兵談)』에서 일본이 산국(山國), 즉 대륙국가가 아니라 해국(海國), 즉 해양국가라고 하는 지정학적 인식을 보인다. 그에 따르면 “해국”으로서의 일본은 대륙국가와 다른 대외정책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국(海國)이란 무엇인가? 육지에서 이어진 이웃나라 없고, 사망이 모두 바다에 면한 나라를 말한다. 그런데 해국에는 해국 당상의 무비(武備)가 있고, 중국(唐山)의 군서(軍書) 및, 일본의 고급에 전수되어온 여러 유파의 학설과 다른 것이다. 그 연유를 알지 못하면 일본의 무술(武術)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우선 해국은 외구(外寇)가 내항하기 쉽다. 또 내항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그 내항하기 쉽다는 것은 군함에 승선하여 순풍을 얻으면 일본의 2,3백리 원해(遠海)도 하루, 이틀에 올 수 있다. 이같이 내항하기 쉽기 때문에, 이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루기 어렵다. 또한 내항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망이 모두 대해(大海)의 험준함이 있어서 함부로 내항하기 어렵다.”<sup>11)</sup>

그는 해양국가인 일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나라로서 청국(淸國)과 러시아를 들었다. 하야시 시헤이에 의하면 청국은, 이전의 중국 왕조들과 비교하면 “토지도 예전 중국(唐山)의 배가 되고, 무예(武藝)도 북풍(北風)을 전수받아 잘 조련되어 있으며, 정욕(情慾)도 북풍(北風)을 받아 강건하게 변화”되었다고 한다.<sup>12)</sup> 그런데 청국보다도 일본의 안위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나라로서 그는 러시아를 주목하였다. 그는 최근 극동에서 러시아(모스카비아)의 진출이 눈부시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구라과의 모스카비아 세력이 견줄 자 없이, 멀리 타르타르(韃靼)의 북지(北地)를 침략하고, 최근에는 시베리아(室韋)의 지방을 경략하여, 동(東)에서

11) 野口武彦, 『江戸の兵學思想』 中公文庫, 1999, p. 248에서 재인용.

12) 野口武彦, 위의 책, p. 250.

는 캄차카(카무시카토카)까지 영토로 삼았다. 그런데 모스카비아에서 동쪽으로 더 이상 취할 영토가 없다. 때문에 예조(蝦夷, 홋카이도)의 동쪽인 치시마(千島)를 손에 넣으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고 듣고 있다<sup>13)</sup>

이같이 1790년대에 하야시 시헤이에 의해 지적된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인식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20-30년대가 되면 영국 및 러시아, 스페인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서구 기독교 세계에 대한 위협론으로 변화하게 된다. 1825년에 저술된 아이자와 세이시사이(會澤正之齋)의 『신론(新論)』, 1833년에 저술된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의 『兵法一家言』 등에서 그러한 인식이 나타난다. 예컨대 사토 노부히로는 위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관찰하고 있다.

“구라파중의 옛나라 러시아와 앵그리아(영국) 두 나라, 근래 병위(兵威)가 매우 강력해 저서 인방 수개국을 병탄하고, 연승의 기운에 올라, 미개지를 혼동(混同)하고, 세계(宇內)를 정복하려는 뜻이 있다. 다수의 군선(軍船)을 내어 대양을 항행하고, 이르는 곳마다 약탈(寇)을 한다. 사대주(四大州)의 여러 나라들이 그 군사력(兵)이 없어 곤궁해 하는 국가들이 있다고 듣고 있다. 만일 그 외구들이 (일본에) 오는 바 있다면 우리들은 장차 무엇으로 대응해야 하는가?”<sup>14)</sup>

막말기의 식자들에 의해 제기된 서구 기독교 세계 위협론, 특히 러시아에 의한 일본 위협론은 1853년 페리 함대의 내항에 의해 일본이 미국, 영국, 러시아 등과 화친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그 영향이 지속되었다. 막말기의 대표적 개명과 식자의 한 사람이었던 요코이 쇼난(横井小楠)도 1860년에 저술된 『국시삼론(國是三論)』에서 러시아의 극동 진출과 이에 대항하는 영국의 세력경쟁관계가 일본에 “전쟁”의 가능성을 남겨준다고 우려하였다.

13) 野口武彦. 위의 책, p. 251.

14) 野口武彦. 위의 책, p. 299.

러시아는 중국과도 조약을 체결하여 흑룡강 지방을 빌리고, 블라디보스톡 항을 개항하고, 일본해에 나오는 항로를 확보하고, 조선해에서 남태평양을 향하여 남하하는 염원을 성취하려고 한다. 이 방침은 이미 결정되어 페테르스부르크에서 흑룡강에 이르는 7천여 리의 철도를 부설 완료하였다고 전해진다.... 블라디보스톡이 변영한다면 여러 나라의 배들이 일본해에 모여, 영국과 러시아의 전쟁도 수년 내에 일본 해상에서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일본은 일본해의 목구멍을 누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향후는 이 전쟁의 승패에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당연 양국이 일본을 같이 취하여 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극히 위험한 경우에 처해 있다.<sup>15)</sup>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막말기 일본의 식자들은 일본을 “해국(海國)”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가진 나라로서 재인식하고, 이러한 일본이 산업혁명과 군사적 성취를 이미 달성한 서유럽 기독교 국가들, 특히 지리적으로 팽창해온 러시아로부터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당시의 식자들은 일본이 러시아로부터 직접 공격을 받거나, 혹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려는 영국과의 세력각축 속에서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을 우려하였다. 당시 일본인들의 전쟁개념에는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에 의한 세계팽창, 특히 러시아의 아시아지역 팽창이 깊게 결부되어 있었던 것이다.

## 2. 막말기의 대응 정책론 전개

서구세계의 팽창을 일본에서의 전쟁 요인으로 간주하였던 막말기의 식자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도 활발하게 제기하였다. 그 방책들은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막말기의 식자들은 서구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과 세계 팽창에 대응

15) 横井小楠, 『國是三論』 1860; 佐藤昌介, 植手通有, 山口宗之, 『日本思想大系 55: 渡邊華山, 高野長英, 佐久間象山, 横井小楠, 橋本左内』 岩波書店, 1971, p. 453.



하여 일본도 나름의 군사력, 특히 해군력을 증강하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위 해방론(海防論) 계열의 주장이다. 하야시 시헤이는 『해국 병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일본의 무비(武備)는 외구를 방지하는 술책을 하는 것이 우선 급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외구를 방어하는 술책은 수전(水戰)에 있고, 수전(水戰)의 핵심은 대총(大銃)에 있다. 이 두가지를 잘 준비(調度)하는 것이 일본 무비(武備)의 정수로서, 중국(唐山) 및 달단(韃靼) 등의 군정(軍政)과 다른 바이다.”<sup>16)</sup>

하야시 시헤이는 해상전략(水戰)의 구체적인 방책으로서 소형 함선(小船)을 많이 준비하여, 서구 국가들의 해상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해방론은 이후 양학 계열 식자들에 의해 계승되어, 아편전쟁 직후 사쿠마 쇼잔(佐久間象山)의 경우에는 네덜란드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서구 함선과 필적하는 대형 함선을 건조하여 일본의 해양을 방어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도쿠가와 막부의 정치 및 경제체제에도 대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up>17)</sup>

둘째, 다른 식자들은 수군(水軍)을 포함한 강력한 군사력을 건설함과 동시에 이를 공격적으로 운용하여 과감한 해외 정벌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위 외정론(外征論)이다. 사토 노부히로(佐藤信淵)의 경우에는 1820년대에 저술된 『混同秘策』 혹은 『垂統秘錄』 등의 저술에서 일본이 국가기관으로서 강력한 “수군부(水軍府)”를 설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여러 오랑캐”를 정벌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우선 지나(支那)와 만주, 나아가 서역, 삼, 인도, 기타 서구 국가들을 “일본의 신복(臣僕)”으로 삼아, 결국 일본이 “전세계를 모두 군현(郡縣)으로 삼고, 만국의 군장(君長)을 모두 신복(臣僕)”으로 삼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8)</sup>

16) 野口武彦, 위의 책, p. 249.

17) 막말기 해방론의 전개에 관해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村榮濬,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 東京大学校 제출 박사학위논문, 2002, 제2장을 참조할 것.

18) 野口武彦, 위의 책, pp. 296~298.

셋째, 요코이 쇼난의 경우에는 일본이 서구 국가들이 매진해온 바와 같이 국내적으로는 정치를 일신하고 해군 건설 등에 힘쓰는 이용후생(利用厚生)과 부국강병의 정책을 취하고, 대외적으로는 교역의 방책을 취하여 외국과 통상의 이익을 나누고, 신의를 나누는 입장을 일관되게 지속한다면 “외국으로부터 수모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해외에 도항하여 해외 여러 나라의 싸움을 중재하는 활동에 힘쓴다면 오히려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의용(義勇)을 본받으러 올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sup>19)</sup>

이상에서와 같이 막말기의 식자들은 서구 세계에 의한, 특히 러시아에 대한 전쟁위협론 하에서 각각 해방(海防)의 체제를 강화하거나, 통상 확대를 통한 부국강병에 힘쓰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정벌의 길을 나아가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가구상의 이면에는 나름의 절박한 전쟁관념이 근저에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 Ⅲ. 메이지(明治) 초기의 전쟁 개념과 대응 정책론

1868년 메이지 정부가 수립되었다. 수립 초기의 메이지 정부는 국내적으로 바쿠후(幕府)를 지지하는 세력들과의 내전(戊辰戰爭)을 치루지 않으면 안 되었고, 대외적으로는 이미 도쿠가와 바쿠후시대에 화친조약을 맺고 있던 구미 국가들과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구미 국가들이 이미 앞서가고 있던 문명개화(文明開化)의 발전단계를 따라잡아야 했다. 이 때문에 아직 국내적 혼란이 채 수습되지도 않았던 1871년에 우대신(右大臣)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를 포함한 메이지 정부의 실력자들은 사절단을 조직하여 1년 반에 걸쳐 구미지역을 순방하기도 하였다.

19) 横井小楠. 「國是三論」(1860), 위의 책, pp. 442~455 참조.

그렇다면 메이지 정부 초기의 정책결정자들과 식자들은 신생 정부가 직면한 대외정세를 어떻게 보았고, 그 가운데에서 잠재적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이 발발하던 1880년대 초기의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위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다.

### 1. 메이지 초기의 정세인식과 전쟁관

메이지 초기의 시점에서 주요 정책결정자와 식자들은 일본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세계 각국 간의 세력각축이 전개되고 있는 장(場)으로 인식하였다. 1870년 5월, 군사문제를 관장하던 병부성(兵部省)이 태정관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는, 이러한 인식을 보이면서, 특히 구미 각국의 세력각축이 아시아 지역에 분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현재 세계(宇內)의 형세는 일변하여 각국과의 교제의 길이 크게 열리고, 밖으로는 모두 공의(公議)를 제창하고 안으로는 각자 사심(私心)을 마음껏 드러내어, 혹은 다른 나라를 병탄하여 자신이 차지하고, 혹은 양항(良港)을 열어 서로 호시(互市)의 장(場)으로 하고, 증기차와 증기선을 통하여 왕성하게 통하여 멀리있는 곳도 자유자재로 왕래하고 5대주도 흡사 이웃과 같이 왕래가 밀접하게 되었다. 따라서 해국(海國)과 산지(山地)를 논할 수 없고, 천연적인 힘준함에 의지하여 자국(自國)을 굳게 지킨다 해도 그 힘준함에만 의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구라파와 아메리카 양 대륙의 각국은 힘써 해육군을 더해 갖추고 서로 대립하는 형세를 굳게 하고 있다. 만국공법에 소위 자호(自護)의 권리를 크게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아세아(亞細亞)의 모든 대륙은 교제의 길이 늦게 열려 세계(宇內)의 정상(情狀)에 통달하지 못하고, 호국의 군비(軍備)를 갖추지 못함으로써 만청(滿淸)과 같은 세계에 둘도 없는 대국도 거듭 영국의 침입을 받아 결국에는 수도(京城)가 함락되는 큰 모욕을 받기에 이르렀다. 실로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sup>20)</sup>

20) 兵部省(1870년 5월), 「海陸軍整備につき兵部省建白」 由井正臣, 藤原彰, 吉田裕 編, 『日本

구미회람사절단의 대표로서 구미지역을 시찰하고 돌아온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도 국제정세가 바둑판과 같은 것으로서, 개별 국가들이 국내적으로는 부강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대등한 외교를 전개하여 “자호(自護)”와 “자주(自主)”를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세계라는 인식을 보였다.

“금일의 세태는 비유하자면 일대 바둑(碁局)과 같습니다. 열국(列國)이 성라(星羅)하여 포석을 놓고 어긋남을(犬牙) 서로 연(連)하여 일착(一着)을 그르치면 흑백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 순식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방국(邦國)이 서로 교제하는 교화(交和)를 보호하고 치안을 보호하는 공법(公法)이 있기 때문에 그 사(事)를 통(統)하고 소(訴)를 결정합니다. 소위 공법은 공의(公義)의 대도(大道)로서 이를 정(情)에 헤아리고 이를 리(理)에 규정(度)하여 그 리(理)는 정미(精微)하고 그 도(道)는 광대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하여 치우침이 없습니다. 때문에 정기(政紀)를 떨쳐 일으키고(振立) 국률(國律)을 확정하고 부강(富強)을 스스로 갖추는 것이 자호(自護)의 핵심이고 교제(交際)를 정리하고 대등한 권리를 접하는 것이 자주(自主)의 최상의 것입니다.”<sup>21)</sup>

이렇게 “자호(自護)”의 권리와 준비를 갖추지 못하면 “만청(滿清)”과 같은 대국도 모욕을 당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대상은, 막말기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로 간주되었다. 메이지 정부 수립 초기 시점인 1869년에 작성된 정책건의서에서 이와쿠라는 “에조(蝦夷)지방에 러시아가 해(害)가 되는 것은 생각건대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일이 아니다. 잠식하고 병탄하는 기세가 충분하여 참으로 큰 우환이라고 이를 만 하다. 지금 마땅히 조정이 계획을 세워 단연히 행하는 바가 없다면 그 큰 우환에 이르는 일은 10년을 기다리지 않으니 어찌 깊이 생각하고 멀리 헤아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러시아

近代思想大系 4:軍隊 兵士』 岩波書店, 1996, p. 21. 이 건의서는 당시 병부대보(兵部大輔)였던 마에하라 잇세이(前原一誠)가 병부성내의 논의를 집약하여 태정관에 제출한 것이다.  
21) 岩倉具視. 「外交ニ關スル上書」(1875년 4월), 『岩倉具視關係文書 1』 1927, pp. 389~390.

위협론의 인식을 보였다.<sup>22)</sup>

앞서 인용한 1870년 5월, 병부성의 정책건의서에도 러시아에 대한 위협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러시아의 품은 뜻이란 아시아와 유럽의 두 대륙을 하나로 합쳐(混一) 스스로가 보유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손을 대는 것은 가까운 곳을 먼저 먼곳을 나중에, 어려운 곳을 미루고 쉬운 것을 취하여 점차로 국토를 확대했다. 따라서 유럽의 동쪽 변경과 아시아의 북부에서 러시아와 경계를 접한 나라는 하나라도 그 침식(侵蝕)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아직 크게 그 뜻을 펼치지 못한 곳은 아시아이다. 해군을 준비하여 근거로 삼을만한 좋은 지역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전부터 터어키(土耳古)를 점령하고 지중해에 돌출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두 대륙을 중간에서 차단(中斷)하려고 했다. 영국과 프랑스는 힘을 합하여 이에 저항하여 이를 완수하지 못하게 했다. 근년에는 흑룡강에 연한 만주지역을 취하여 우리의 북해도 및 조선과 경계를 접하였고 연이어서 황국(皇國), 지나(支那), 조선(朝鮮)의 북쪽 경계를 밀고 들어왔다. 지금 만일 동해(東海)에 돌출하여 양항(良港)을 얻어 해군을 정비할 때에는 그 큰 욕심을 끝내 제지하지 못하고 두 대륙의 큰 피해(大害)가 이에 필적할 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실로 황국(皇國)으로써는 경계해야 할 제일의 사안으로서 단연 이를 억눌러 저지할 큰 방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sup>23)</sup>

러시아 위협론은 메이지 초기의 시기에 민간의 식자(識者)들 사이에서도 널리 공유되고 있었다. 1877년 10월 10일자의 『동경일일신문(東京日日新聞)』에 게재된 한 칼럼은 당시 터어키에 내란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러시아가 터어키를 침략하면서, 이슬람의 교인들을 살육하는 정세를 소개하면서, 이 전쟁은 러시아에 의한 “정략전쟁(政略戰爭)”, “암흑세계의 전쟁”이며,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는 유럽 지역은 “군웅할거의 전국시대(戰國時代)”와 다를

22) 岩倉具視, 「會計外交等條條意見」(1869년 2월) 『岩倉具視關係文書 1』 1927, pp. 324~25.

23) 兵部省, 「海軍ヲ創立スベキノ件」, (1870. 5), 『海軍制度沿革:卷二』 海軍大臣官房, 1941, pp. 37~40.

바가 없다고 평가하였다.<sup>24)</sup> 1878년 12월, 신문기자였던 다카하시 기이치(高橋基一)는 『아사노신문(朝野新聞)』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러시아가 터어키 내란에 개입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이나 만주, 이리지역, 그루지아 등을 병탄(併呑), 잠식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를 호랑이 보듯이 하고, 그 독구(毒口)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5)</sup>

## 2. 메이지 초기의 대응 정책론

마치 바둑판과 같이 세계열강이 각축하는 세력경쟁의 장으로 국제정세를 파악하고,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전쟁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메이지 초기의 일본 정책결정자들과 식자들은 과연 어떠한 정책으로 이에 대응하고자 하였던가. 이에 관해서도 세 가지 유형의 대응정책론을 식별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우선, 병부성 등을 중심으로 해서는 메이지 정부도 근대적인 해군과 육군 등의 전력을 양성하여 서구 국가들로부터의 침략이나 전쟁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병부성은 1870년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바로 지금 이 “와신상담(臥薪嘗膽)의 시기”라고 비유하면서, 상하가 “전시(戰時)의 생각으로 크게 여러 비용을 절약하여 군비에 제공하고, 세입의 반으로써 힘써

24) 『歐洲諸國は群雄割據に外ならず』, 『東京日日新聞』(1877.10.10.), 芝原拓自, 猪隆飼明, 池田正博. 『對外觀: 日本近代思想大系12』 東京: 岩波書店, 1989, pp. 104~105.

25) 高橋基一, 『魯國形勢論』, 『朝野新聞』(1878.12.28.), 芝原拓自, 猪隆飼明, 池田正博, 『對外觀: 日本近代思想大系12』 東京: 岩波書店, 1989, p. 128. 한편 스기야마(杉山繁)는 러시아가 터어키를 공략한데 이어, 흑해, 지중해, 인도 방면으로 진출할 것이기 때문에, 동양 여러 국가들은 오히려 국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예상했다. 杉山繁, 『魯勝土敗は東洋の不利にあらず』, 『郵便報知新聞』(1878.1.28.), 芝原拓自, 猪隆飼明, 池田正博, 『對外觀: 日本近代思想大系12』 東京: 岩波書店, 1989, pp. 113~114. 러시아에 대한 극도의 경계감에 대해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스기야마는 1878년의 칼럼에서 미국은 러시아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약소한 나라를 침탈하지 않고, 타국의 권리를 존중하여, “쟁탈세계와 분리된 별도의 천지”라고 평가하였다. 杉山繁, 『各國交際の形勢を論ず』, 『郵便報知新聞』(1878.2.16.), 芝原拓自, 猪隆飼明, 池田正博, 『對外觀: 日本近代思想大系12』 東京: 岩波書店, 1989, p. 128.

시급하게 해육군(海陸軍)을 양성”해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수년이 지나지 않아 서구 국가들과도 “대립의 세(勢)”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6)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의 제자로서 도쿄보지신문(東京報知新聞)의 기자였던 미노우라 가춘도(箕浦勝人)도 1879년에 동 신문에 쓴 기사에서, 부국(富國)의 근본은 사실 강병(強兵)에 있으며, 국가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우선 군사력 강화의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7)</sup>

한편, 이와쿠라 도모미는 이 같은 강병(強兵) 중심의 국가건설구상에 대해 “강병”의 목표가 시급하기는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력을 양성하는 일이 선결과제라고 하였다. 설령 수백 척의 함선을 갖춘다 해도, 국력의 기반 없이는 그를 운용할 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전함을 사들이고 병기를 구입하는 등의 일은 옛 부터 불가결한 일이지만은, 원래 나라가 부유하게 된 연후에 군대가 강해지는 것이 도리로서, 나라가 피폐한데 군대만 홀로 강하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정책은 전함, 병기 등은 잠시 뒤로 돌리고, 당장 우선 그 국력을 양성함만 갖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설령 국내의 10년간 세입을 거두어 전함을 구입한다 해도 영국 등과 같이 수백 척의 (전력을) 이루기에는 원래부터 계획하기가 힘든 것이다. 동시에 지금 돌연히 수백 척의 전함을 갖춘 다해도 어느 사람을 장수로 삼고, 어느 군사를 승선시키며, 어느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들을 행하도록 바랄 것인가. 우선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될 수 있는 한 해군의 조련을 배우게 하는 것만 같지 않다. 만약 조련이 능숙하게 되어 국가의 부(富)에 따라 전함과 병기를 얼마라도 구입하기를 바란다면 즉각 이를 구할 수 있다. 서양 제국이 몇 년간 풍요의 힘으로써 축적한 바의 선박과 기계를 지금 하루

26) 兵部省, 『海陸軍整備につき兵部省建白』(1870년 5월), 由井正臣, 藤原彰, 吉田裕 編, 『日本近代思想大系 4: 軍隊 兵士』, 岩波書店, 1996, p. 23. 구체적으로 병부성은 이 건의서에서 전국 세입의 1/4을 군사비로 돌려, 대소 군함 200여척과 상비병력 2만5천을 갖는 해군 증강 방안을 제시하였다.

27) 그는 이 기사에서 비상사태가 되면 믿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병마(兵馬)의 힘이 있을 뿐이며, 만국공법(萬國公法)에 의뢰하는 것은 나무아미타불을 외면서 도적을 방어하는 것과 같다고도 하였다. 箕浦勝人, 『強兵富國論』, 『郵便報知新聞』(1879. 4. 9.-4. 10), 芝原拓自, 猪隆飼明, 池田正博. 『對外觀: 日本近代思想大系12』, 東京: 岩波書店, 1989, p. 136, 139.

아침에 그 융성함을 따라갈려고 하면 국력은 헛되어 쇠퇴해지고 병력은 오히려 약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할 일은 단지 국력을 증대하는 것을 시도해서, 재용(財用)을 절약하고, 허물을 버리고 실질을 구해 이로써 강병(強兵)의 근본을 일으키는 일을 필요로 한다.<sup>28)</sup>

이와쿠라는 이 같은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주변국인 청국과 조선에 대해서도 “당연히 칙사를 파견하여, 우호를 닦고, 삼국이 정립하는 세력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sup>29)</sup> 이와쿠라는 이 같은 대외정책론에 입각하여, 그가 구미시찰을 마치고 귀국하였을 때 전개되었던 정한론(征韓論) 논쟁에서 불가의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보인다.<sup>30)</sup>

다른 한편 또 다른 메이지 정부의 실력자였던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는 왕정복고 직후부터 조선 등에 대한 무력정복을 주장하였다. 기도는 1869년 1월, 당시 신정부의 군사문제를 담당하던 오무라 마스지로(大村益次郎)에게 보낸 서한에서, “병력으로 조선 영토(韓地)의 부산을 열고 싶다. 조선은 원래 물산(物産) 금은(金銀)의 이익은 없는 곳이고 도리어 손실이 예기되나, 황국(皇國)의 큰 방향을 세워서, 억만생(億萬生)의 시선을 내외에서 일변시키고, 훗날 황국을 흥기시키고 만세(萬世)에 유지시키는 방책”이라고 하였다.<sup>31)</sup> 비슷한 시기 외무관료들도 유사한 주장을 전개하였다. 1870년 외무권대승(外務權大丞) 야나기히라 사키미츠(柳原前光)도 조선을 복속시키는 것이 “황국 보전의 기초로서 후일 만국을 경략하고, 진취(進取)하는 기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32)</sup> 앞서 소개한 병부성의 1870년 정책건의서도, 강력한 해군을

28) 岩倉具視, 『會計外交等條意見』 (1869년 2월) 『岩倉具視關係文書 1』, p. 319. 같은 문서가 『岩倉具視國事意見書抄錄』 (明治 2년 2월), 渡邊幾治郎, 『皇軍建設史:基礎資料』 東京: 照林堂, 1944으로도 실려 있다.

29) 앞의 문서 참조.

30) 이와쿠라의 아시아 정책론에 대해서 본고와 유사한 입장을 갖는 연구로는 安岡昭男, “岩倉具視の外交政略”, 『法政史學』 21, 1969. 3 등을 참조.

31) 井上清, 『日本帝國主義の形成』 岩波書店, 1968, p. 4.

32) 芝原拓自, “對外觀とナショナリズム.” 芝原拓自, 猪俣飼明, 池田正博, 『對外觀: 日本近代思想大系12』 東京: 岩波書店, 1989, p. 473에서 재인용.



건설한 이후 “북해(北海)를 개척하여 북단까지 이르고, 조선(朝鮮)을 회복하여 속국(屬國)으로 삼고, 서쪽으로는 지나와 연결하여 러시아 오랑캐의 강력함과 정예를 눌러 제압”하는 것이 일본이 취해야 할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33) 1873년에 제기되는 정한론 논쟁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같이 메이지 초기에도 서구 국가들에 대한, 특히 러시아에 대한 위기인식을 갖고, 메이지 정부의 실력자들과 식자들은 강병 중심의 국가건설론, 국력 배양 중심의 국가건설 및 대외 화친론, 혹은 조선정벌론 등을 그에 대한 대응 정책으로 제기하였다. 이러한 대외정책론은 서구국가들, 특히 러시아로 인한 침략과 전쟁도발의 가능성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구상되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IV. 메이지(明治) 중기의 전쟁 개념과 대응 정책론

1880년대 이후의 시기는 일본 국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분기점이 되고 있다. 우선 메이지유신 과정을 주도했던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成),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등이 80년대를 전후로 사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등 차세대 정치세력들에게 메이지 정부의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이들 차세대 정치세력들은 메이지 초기의 국가건설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려는 의욕을 갖게 되었다. 국제정세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1882년의 임오군란, 1884년의 갑신정변이 벌어지면서 일본 내에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청국 및 러시아 등 대륙세력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보다 현실적인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렇

33) 兵部省. 『海軍ヲ創立スベキノ件』, (1870.5), 『海軍制度沿革: 卷二』(海軍大臣官房, 1941), p. 38.

다면 새로운 정치 행위자들은 메이지 중기의 변화하는 대내외 정세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 1. 메이지 중기의 정세인식과 전쟁관

1880년대 메이지 정부의 실력자들은, 그 선배 세대들인 이와쿠라 도모미 등과 마찬가지로, 당대의 국제정세가 서구 열강들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식민지 팽창으로 특징 지워진다고 인식하였다. 1880년대 후반 외무경을 역임하는 이노우에 카오루(井上馨)은 1887년에 작성한 정책의견서에서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등 유럽 각국이 식민지 개척의 정략에 전념하고 있고, 이 결과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의 유럽 각국의 각축의 경연장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4)</sup> 이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큐바, 투르키스탄, 다르지스탄 등의 국가들이 영국이나 러시아 속령으로 화하게 될 것이고, 페르시아, 버마, 조선 등도 구미 각국의 식민정략에 대응할 국력이 빈곤한 상황인데, 오직 일본과 중국 2개국만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근대 일본 군대의 사실적인 창설자로서 1890년에 수상도 역임하게 되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는 유럽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러시아와 영국이 글로벌 수준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고, 아시아가 그 충돌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가 1888년 1월에 제출한 군사의견서는 다음과 같은 정세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의 형세를 보건대 아세아에서 영국과 러시아 양국이 서로 알력을

34) 井上馨, "條約改正問題意見書"(1887.7.9.), 芝原拓自·猪飼隆明·池田正博 編 『日本近代思想大系12:對外觀』 岩波書店, 1996, p. 62.

빛어 동양에 일대 파란이 장차 수 년 내에 일어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니, 사정이 이와 같이 절박하게 됨은 무슨 연유인가. 캐나다에 태평양 철도가 놓여지고 시베리아(西伯利) 철도가 부설됨에 따라 영국의 동양항로가 단축되고 러시아 군대가 동쪽으로 향해 신속하게 올 수 있게 됨이 그것이다. 이에 더해 남아메리카의 파나마 地峽에 개통되는 운하는 수년이 안 되어 대서양과 태평양의 두 바다를 연결하게 된다... 대저 영국은 러시아와 그 이익이 서로 마찰되어 분규와 갈등의 씨앗이 실로 많으니, 때문에 영국과 러시아 양국은 아시아에서 전쟁(干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및 조선의 사정이 특히 그 충돌의 근원이 되어 대륙상에 교통과 운수의 길리 점점 편리하게 된다 면 그 시기가 촉진되어 점점 절박하게 될 것이다.”<sup>35)</sup>

야마가타는 영국에 의해 캐나다 횡단철도가 개통될 경우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것보다 동양에 이르는 거리가 단축되고, 러시아에 의해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개통되면 그 수도에 주둔하는 대병력을 십수일 내에 흑룡강이나 조선 등의 지역에 전개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36)</sup> 이와 유사한 인식은 당시의 언론인들에 의해서도 공유되고 있었다.

『아사노신문(朝野新聞)』은 1887년 8월의 기사에서, 야마가타의 인식과 동일하게, 러시아가 시베리아 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병사와 양식을 수월하게 시베리아 전방에 수송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청국 및 영국과도 아시아 지방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분석하였다.<sup>37)</sup> 특히 이 기사의 작성자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철도 건설로 인해, 중국, 조선, 일본이 지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면서, 일본으로서는 “(러시아가) 조선 땅을 침략하고 그곳에 거대한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기회를 노려 우리(일본) 서해안을 공격해 오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였다.

35) 山縣有朋 「軍事意見書」 (1888년 1월), 芝原拓自·猪飼隆明·池田正博 編 『日本近代思想大系12: 對外觀』 岩波書店, 1996, p. 145.

36) 山縣有朋, 「外交政略論」 (1890년 3월), 大山梓編. 『山縣有朋意見書』 原書房, 1966, p. 197.

37) 「シベリア大鐵道と東亜三國との關係」 『朝野新聞』 1887년 8월12-13일. 芝原拓自·猪飼隆明·池田正博 編 『日本近代思想大系12: 對外觀』 岩波書店, 1996, pp. 242~243.

이같이 메이지 중기의 정책결정자들과 식자들은 러시아와 영국 등의 유럽 열강이 전개하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식민지 쟁탈, 특히 양국이 아메리카와 시베리아 지역에 부설하고 있는 철도건설의 잠재적 위험성 등을 지적하였다.

특기할 만한 것은 메이지 중기의 정책결정자와 식자들이 유럽 열강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시나리오가 일본의 안위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점이다. 야마가타 아리토모도 그러하였고, 아사노신문의 기자도 그러한 인식을 보여주었다. 참사원(參事院) 의관(議官)의 직위에 있던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는 임오군란 직후에 작성한 조선문제 관련 정책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朝鮮의 문제는 장래 東洋 交際와 政略의 일대문제가 되어, 2,3국간 혹은 이 나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조선의 실재를 살피건대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용약(庸弱)하고 인민은 우매하여, 지금 수십 년 간은 일개 독립국이 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 군민(軍民)이 외국인을 적시하고 이에 무례를 더하는 것은 지금 수년간 멈출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운 조약을 맺을 영미 프러시아 국가들이, 혹은 기타 국가들이 명의(名義)를 가장하면서 기회를 노려 그 요지(要地)를 점령하고, 그 내정에 간섭하여 안남(安南)이나 緬甸과 같은 것으로 하려는 것은 필연일 것이다.... 만일 유럽(歐洲)의 일국이 조선을 점거하여 안남 혹은 인도의 유례에 따르고자 한다면, 아국(我國)은 두상(頭上)에 칼을 걸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만일 불행하게도 러시아(露國)가 조선을 탈취하려 한다면 동양의 대세(大勢)는 전혀 할 바가 없게 될 것이다. 때문에 동양을 위해 균세(均勢)를 지키려면 지나(支那)와 아국(我國)은 힘을 다하여 조선의 독립을 보호하고 러시아(露國)의 남침을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된다. 東洋을 위해 수년 후를 생각하는 자는 반드시 이 뜻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sup>38)</sup> (53)

38) 井上毅, 「朝鮮政略意見案」(1882년 9월17일), 芝原拓自·猪飼隆明·池田正博 編 『日本近代思想大系12: 對外觀』 岩波書店, 1996, pp. 52~5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이지 중기의 일본 식자들은 영국과 러시아 등 유럽 열강에 의한 아시아 및 아프리카 침탈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각축이 시베리아 철도 건설 및 캐나다 횡단 철도 건설 등에 의해 아시아 지역에도 밀려오리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이들은 한반도가 열강 간 각축의 핵심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정세인식 속에서 일본은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취해야 하는가가 자연히 이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 2. 메이지 중기의 대응 정책론

1887년 나카에 초민(中江兆民)은 『삼취인경륜문답(三醉人經綸問答)』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에서 나카에는 양학신사(洋學紳士), 호결군(豪傑君), 남해선생(南海先生)이라는 3명의 인물을 등장시켜, 구미세력의 아시아 팽창에 대응하여 일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한 상이한 방책을 발언시키고 있다. 양학신사는 일본에 민주와 평등의 제도를 확립하고, 군비를 철폐함으로써 타국에 전쟁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의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호결군은 주변의 대국을 일본 스스로가 나아가 정복하여 강국이 되는 것이 서양 국가들의 전쟁 위협에 대응하는 길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양학선생은 아시아 국가들과 동맹을 맺어두면서, 만일 구미 국가들이 전쟁을 걸어온다면 국민 모두가 병사가 되어 힘껏 저항하는 방식이 유효하다고 제안하였다.<sup>39)</sup> 이 같은 상이한 대응 정책론은 실제 1880년대 일본에서 제기된 정책론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양학신사의 민주평화론적 정책대응은 당대의 외부경이었던 이노우에

39) 나카에 초민(中江兆民) 지음,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삼취인경륜문답(三醉人經綸問答)』 (1887: 서울:소명출판,2005). 동경대학 다나카 아키히코(田中明彦) 교수는 양학선생의 국제 정치관이 루소나 칸트, 호결군이 마키아벨리, 남해선생이 그로티우스에 비견될 수 있으며, 나카에 초민의 이 저작이 일본에서 최초로 국제정치적 논쟁을 소개한 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田中明彦, 「日本の國際政治学：積み分けを越えて」 日本國際政治学会 編 『日本の國際政治学:学としての國際政治』 (有斐閣,2009).

카오루(井上馨)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노우에 외무경은 앞서 소개한 1887년의 정책의견서에서 유럽 열강의 전 세계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으로서의 그 국가제도 및 인민들의 풍습을 유럽의 국가체제 및 풍습에 따라 변화시키는 것이 독립을 지키는 방책이라고 보았다. 소위 “유럽적 신제국”을 건설하는 “구화주의(歐化主義)”를 제시한 것이다. 40)

남해선생이 제시한 아시아국가간의 연대론, 혹은 그를 기반한 대서구 일치대항론은, 1880년대 초기까지 조선 개화파와의 연대를 도모한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혹은 나카에 초민 자신의 정책구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나카에 초민은 1888년에 집필한 칼럼에서, 러시아 등의 침략 위협에 대응해서 서구 국가들과 연대하여 대응하기 보다는 일본의 남자들이 일체를 이루고 인의를 취하다가, 만일 서구 열강들이 공격해 온다면 모두 죽을 각오로 맞설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41)

호걸군이 주장한 외정론(外征論)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은 병부경 및 수상을 역임하고 있는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인 것으로 보인다. 야마가타는 수상에 취임한 직후에 행한 연설에서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조선은 일본의 주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익선의 범위에 해당됨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조선을 방호하기 위해 20만의 육군 병력 및 해군력의 충실이 필요하다고도 하였다. 42) 야마가타는 청일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와의 전쟁이 불가피함을 예상하면서, 러시아의 국력에 대응하기 위한 영국 혹은 독일과의 동맹체결론도 주도한 바 있다.

『삼취인경륜문답(三醉人經綸問答)』의 카테고리 안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가 조선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구상도 당대의 주

40) 그는 구화주의 방침에 따라 법전도 유럽식으로 편찬하고, 외국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재판소에서 영어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井上馨, 「條約改正問題意見書」(1887.7.9.), 앞의 책, p.64.

41) 中江兆民 「外交論」 『東雲新聞』(1888년 8월26-28일), 芝原拓自猪飼隆明池田正博 編 『日本近代思想大系12: 對外觀』 岩波書店, 1996, pp. 249~252.

42) 山縣有朋, 「外交政略論」(1890년 3월), 大山梓 編. 『山縣有朋意見書』(原書房,1966).

요 정책구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노우에는 러시아 등 구미 열강이 조선을 병탄하려 함을 우려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청국, 미국, 영국, 독일 등 5개국이 회동하여 조선 문제에 대한 국제협약체를 창설하며, 이 협약체에서 조선에 대해 영세중립국의 지위를 부여하고, 열국이 같이 보호한다면, 동양의 안전 및 일본의 이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43)

이상에서와 같이 1880년대 일본의 식자들에 의한 외교정책론 및 아시아 정책론은 당대 일본이 처한 국제정세 및 전쟁관과 표리를 이루며 구상되었던 것이다. 결국 러시아 및 구미 열강에 의한 아시아에의 전쟁위협인식이 조선 및 아시아 지역에 대한 보다 팽창적인 대외정책을 결과한 한 요인이 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V. 맺는 말

개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특정 사회집단이 사용하는 개념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 집단이 지향하는 기대수준, 혹은 미래에의 전망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에도(江戸) 시대의 일본인들은 국가와 국가 간, 혹은 제후와 제후 간의 싸움을 이쿠사(戰), 혹은 에키(役)로 불렀다. 그러다가 19세기 이후에는 “센소우(戰爭)”라는 새로운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전쟁” 개념이 언제부터, 어떤 경위를 거쳐 역어(譯語)로서 개발되었고, 사용되기 시작했는가는 불분명하다. 다만 본고에서 지적하였듯이, 18세기 중기 이래 네덜란드 역관들에 의해 서구의 정세가 알려지고, 러시아 및 영국 등 구미 열강들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을 향해 식민지 침탈을 하고 있고, 일본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1860년에 『국시삼론(國

43) 井上毅. “朝鮮政略意見案”(1882.9.17.), 위의 책, p. 54.

是三論』을 저술한 요코이 쇼난의 경우에서와 같이, 나폴레옹전쟁과 산업혁명 이후 해군 및 야포 등의 새로운 무장형태를 갖고 일본에 접근해올 러시아 등 구미국가들과 예상되는 새로운 형태의 싸움을 지칭하기 위해, 종래 사용되던 “이쿠사” 나 “에키”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대 일본에서 “전쟁”의 개념은, 그 이전 시대에는 상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싸움, 즉 근대적 무장과 군대의 형태를 지니고 세계를 향해 팽창해 나가던 러시아, 영국 등 구미 국가들과의 장차 있을 수 있는 무력투쟁을 내포한 새로운 개념이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새로운 “전쟁”에 대한 예감은, 종전까지 존재하던 도쿠가와 비쿠후(德川幕府)의 군사제도나 정치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변혁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구미 국가들과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제도 및 그를 지탱하기 위한 재정제도 및 국가체제의 변혁이 요구되었다.

또한 “새로운 전쟁”에 대한 예감은 종래의 대외관계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였다. 쇄국체제로부터의 탈피, 구미 국가들의 예봉(銳鋒)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대외관계의 수립, 종전에 유지되던 청국 및 조선과의 대외관계에 대한 수정 등이 새로운 외교과제로서 제기되었다. 메이지유신을 전후하여 일본의 근대화 정책 및 대외정책이 급격한 변화의 양상을 노정하는 것은, 이러한 새로운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과 절박함이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막말기 이래 일본인들이 “전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인식하고 있던 국제정세관과 그 대응방책 구상은 메이지 국가의 국내적, 대외적 변혁을 견인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 岩倉具視, "會計外交等條條意見"(明治 2년 2월) 『岩倉具視關係文書 1』 .
- 岩倉具視, "朝鮮事件ニ關スル奏問書"(明治 6년 10월), 『岩倉具視關係文書 1』 .
- 岩倉具視, "外交ニ關スル上書"(明治 8년 4월), 『岩倉具視關係文書 1』 (1927).
- 井上毅, "朝鮮政略意見案"(1882.9.17).
- 橫井小楠, 『國是三論』(万延 元年), 佐藤昌介, 植手通有, 山口宗之, 『日本思想大系 55: 渡邊華山, 高野長英, 佐久間象山, 橫井小楠, 橋本左內』(岩波書店, 1971).
- 兵部省, 「海軍ヲ創立スベキノ件」, (1870.5), 『海軍制度沿革: 卷二』(海軍大臣官房, 1941).
- 福澤諭吉, "征臺和議ノ演說", 『明六雜誌』 제21호 (1874년 11월).
- 中村正直, "支那不可侮論" 『明六雜誌』 제35호 (1875년 4월).
- "歐洲諸國は群雄割據に外ならず", 『東京日日新聞』 (1877.10.10.).
- 杉山繁, "魯勝土敗は東洋の不利にあらず", 『郵便報知新聞』 (1878.1.28.).
- 杉山繁, "各國交際の形勢を論ず", 『郵便報知新聞』 (1878.2.16.).
- 高橋基一, "魯國形勢論", 『朝野新聞』 (1878.12.28.).
- 箕浦勝人, "強兵富國論", 『郵便報知新聞』 (1879.4.9.-4.10).
- "東洋諸國の形勢", 『横浜毎日新聞』 (1879.6.27-6.28).
- 「シベリア大鐵道と東亞三國との關係」 『朝野新聞』 1887년 8월12-13일.
- 中江兆民, 『三醉人經綸問答』(1887): 나카에 초민, 연구공간 수유너머 일본근대사상팀 옮김 『삼취인경륜문답』(서울:소명출판, 2005).
- 中江兆民 「外交論」 『東雲新聞』 1888년 8월26-28일.
- 山縣有朋 군사 의견서 (1888년 1월).
- 山縣有朋, 「外交政略論」(1890년 3월) 大山梓 編, 『山縣有朋意見書』(原書房, 1966).
- 山縣有朋, 「東洋同盟論」(1901년 4월24일) 大山梓 編, 『山縣有朋意見書』(原書房, 1966).

### 2. 자료집

- 由井正臣, 藤原彰, 吉田裕 編, 『日本近代思想大系 4: 軍隊 兵士』(岩波書店, 1996).
- 芝原拓自, 猪隆飼明, 池田正博, 『日本近代思想大系12: 對外觀』(岩波書店, 1989).

3. 2차 자료

가토 요코(加藤陽子), 『근대 일본의 전쟁논리』 박영준 역(태학사, 2003).

孫子, 『孫子兵法』 김광수 역주 (책세상, 1999).

Peter Paret, "Clausewitz", Peter Paret, ed., *Makers of Modern Strategy*. Oxford: Clarendon Press, 1986.

Azar Gat, *The Development of Military Thought: The Nineteenth Century*. Oxford: Clarendon Press, 1992.

Terence Ball, *Transforming Political Discourse: Political Theory and Critical Conceptual History*. Oxford: Basil Blackwell, 1988.

佐藤堅司, 『孫子の思想史的研究』 (原書房, 1980).

野口武彦, 『江戸の兵學思想』 (中公文庫, 1999).

渡邊幾治郎, 『皇軍建設史:基礎資料』 (東京: 照林堂, 1944).

井上清, 『日本帝國主義の形成』(岩波書店, 1968).

植手通有, 『日本近代思想の形成』 (東京:岩波書店, 1974).

岡義武, 「日清戦争と当時における対外意識」 『岡義武著作集』 (岩波書店, 1993).

芝原拓自, "對外觀とナショナリズム", 芝原拓自, 猪隆飼明, 池田正博, 『對外觀:日本近代思想大系12』 (東京:岩波書店, 1989).

安岡昭男, "岩倉具視の外交政略", 『法政史學』 21 (1969.3).

石田雄, 『日本の政治と言葉:自由と福祉』 (東京大学出版会, 1989).

淺野祐吾, 「近代日本におけるクラウゼウイツの影響」, ク라우ゼウイツ協會編 『戦争なき自由とは』 (日本工業新聞社, 1982).

小林克己, 「明治初期における大陸外交: 初期征韓論をめぐる木戸と岩倉」 『歴史評論』 107 (1959.7).

三宅紹宣, "幕末, 維新时期における諸階層の對外認識", 『幕末, 維新时期長州藩の政治構造』 (東京:校倉書房, 1993).

猪口孝, 「日本の國際關係論の系譜」 『國際關係論の系譜』 (東京大學出版會, 2007).

田中明彦, 「日本の國際政治学: 積み分けを越えて」 日本國際政治學會 編 『日本の國際政治学: 学としての國際政治』 (有斐閣, 2009).

朴榮濬,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 (東京大学校 博士學位論文, 2002).

ABSTRACT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war" in the modern Japan

Park, Young-June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From the late 18th century, Japanese intellectuals began to use the concept of war replacing the old usage of "ikusa" or "tadakai": the concept of war implied a conflict among the countries whereas "ikusa" or "tadakai" referred to the military clashes among the feudal lords.

Under the concept of war, Japanese policy makers and intellectuals perceived the latent threat from Russia or Qing during the pre-modern age. In response to the threat, they urged the necessity of building naval forces or fortifying the maritime defense system.

When the era of the Meiji Restoration began in the late 1860s, Japanese policy makers continuously shared the perception of threat from Russia. In response to it, they proposed a conquest of Chosun as well as the rapid modernization under the slogan of the rich nation and the strong army.

The advent of new phenomena requires a new concept which depicts the phenomena. New concepts bring forth a new policy. We can find that the concept of "war" in the modern Japan was not exceptional in this case.

Keywords: Modern Japan, Concept of War, Threat, Meiji Restoration

투고일: 2012년 6월 28일, 심사일: 2012년 7월 10일, 게재확정일: 2012년 8월 10일

